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9호 2019년 3월 4일(월)/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입학 축사

02 이사장 致 辭

02 김두년 총장

03 이차영 괴산군수

03 박덕흠 국회의원

03 박병준 총학생회장

Campus News

04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 달성

04 '한국 그린캠퍼스 운동 10주년 기념행사' 참여

04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04 비행교육원,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05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교수, '제18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05 사회복지학과 정명희 교수, '2018 충북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수상

05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 외국인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05 '뛰어라 Job아라'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05 창의인성교육센터,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Students News

06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100%합격 쾌거

06 항공운항학과 최관해 학생,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06 항공서비스학과 첫 졸업생 아시아나항공 합격 영광

06 '2018 동계 글로벌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입상 쾌거

Social News

07 괴산문화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07 경찰행정학과, 괴산군과 지역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07 사회봉사단, 네팔 해외봉사활동 펼쳐

07 충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JWU in 人

08 중원 어벤져스 – 총학생회 '스텝' & 단과대 임원 소개

09 패기와 자신감으로 도전하라! – 최관해 학우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09 중원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 경찰관 김영후 동문 이야기

Life in JWU

10 나에게 주는 숙제

10 괴산은 우리가 지킨다!

11 나의 특별한 단점 극복기 – 뷰티인사이드

Healing Campus

12 토닥토닥, 내 마음 다독이기

13 너만 모르는 중원의 힐링 플레이스

Freshman Special

14 대학생활, 이것만 알면 문제 없다!

15 "귀여운 후배들아, 대학생활 궁금하지?"

16 17 알쓸중잡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중원대 잡학사전

Career

18 나의 꿈을 키우다! – 해외 인턴 도전기

18 어서와 취업은 처음이지? – 취업 꿀팁 정보

Culture

19 '중원의 스벅' – 저렴하고 맛있는 학교 커피숍

신입생을 위한 괴산읍내지도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이사장 致 辭

친애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중원의 미래를 밝혀줄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 입학식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종단 대순진리회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해원상생의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입니다. 또한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세계인, 창조적인 문화인" 육성을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아,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참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내의 그 어떤 대학도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 뒤에는 김두년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 직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임을 알기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원대가 이곳 괴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 관계자분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충북도민의 성원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원 대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각오와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이 늘 봄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원하기 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원대학교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학교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개교 10주년이 되는 중원대학교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관평가 인증, 간호교육인증 평가,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인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을 모두 획득하였고 충북도내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수년간의 고난을 이기고 대학에 입학하며 성년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둘러싼 국가적, 지역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오롯이 여러분과 같은 청춘 세대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적 상황에서도 우리 중원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본에 충실해야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기본이란,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 시스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학생, 직원, 교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중원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꿈을 키우고 생각의 나무를 무럭무럭 키우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일으키는 개벽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꽃처럼 아름다운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4.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총장 환영사



총장 **김두년**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기관장님과 내외귀빈께서 참석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입학식은 누구보다 먼저 학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학식이 있기까지 소중한 자녀들을 당당한 젊은이로 만들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는 '해원상생'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0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시대가 원하는 품성과 인성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대학의 신입생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결정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대학인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총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그레드 S. 레이드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꿈에다 연도를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날짜별로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하면 꿈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긍정의 힘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당장 그 꿈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200% 활용하셔서 건전한 신체와, 덕망과 지혜를 두루 겸비한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4.

중원대학교 총장 김두년

입학 축사



괴산군수 **이차영**

꿈이 많은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의 문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중원대학교는 2009년도 개교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학교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4차 산업의 5G 기술은 전 세계인들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을 중원대학교에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도 여러분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괴산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3회 연속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전국 우수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괴산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옛길은 전국 대표 트레킹 코스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가고 있으며, 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 쌍곡구곡, 갈은구곡, 선유구곡 등 곳곳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산, 들, 강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관광자원의 보고이며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역사 유적을 기반으로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등 명품힐링 체류형 관광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청정지역의 훈훈한 인심과 유기농·친환경 명품 농산물인 감자, 대학찰옥수수, 괴산청결고추, 시골절임배추, 사과, 인삼, 한우, 양돈 등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도시입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으로 선포한 괴산군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유기농특화도시로의 면모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한살림, 흙살림, 아이쿱 생협 등 친환경과 유기농을 생명으로 하는 업체들이 괴산에 입주하며 미래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유기식품산업단지, 수산식품산업단지, 괴산첨단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 등 조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로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드림타운, 몽도래 언덕 등을 조성,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있어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괴산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생 중 학창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언제나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괴산군민이 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박덕흠**

제 20대 국회의원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존경하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중원대학교 2019학년도 제11회 입학식을 맞아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괴산지역의 구성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운의 푸른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중원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과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여러분!

세계를 품은 작은 지구촌,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인 중원대학교는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무엇보다 인간교육과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원상생의 설립이념과 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인재양성에 노력해 오신 김두년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께서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품성을 갈고 닦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중원대학교에서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진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제8대 '스템' 총학생회장 박병준입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에 중원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학한 중원대학교는 역사는 짧지만 탄탄하고 강한 명품 대학으로, 해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많은 재원들을 배출하고 있는 대학이며, 글로벌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대학입니다.

저는 중원대학교의 제8대 총학생회장이자 여러분의 선배로 중원대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제8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입학한 대학교가 학업은 물론, 학교생활 하는데 있어 문화, 복지가 좋은 대학교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총학생회에서 지원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직업적인 학문과 기술을 교육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교양을 쌓는 인생 경험치이며, 인생 그 자체입니다. 선배로서 신입생 가족여러분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이 글을 빌어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인생목표를 설정, 설계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기 모습을 모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배회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입생 여러분 앞에 펼쳐진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행하기, 외국어 배우기, 인턴십과 진로탐색 및 경험 등은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누릴 수 있는 대학생의 특권입니다.

셋째, 훌륭한 스승님들과 평생 벗을 만나고,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께 먼저 다가가서 교육설계는 물론, 인생 상담도 하고 지식과 지혜도 배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현재, 사람들은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나, 저는 불확실한 시대를 싸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며 여러분들은 확실한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이 사회의 유망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대학교에서 대학 4년이 황금알을 낳는 유망주가 되기 위한 착실한 준비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 달성



▲우리 대학이 충북지역에서 취업율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우리 대학이 12월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공시취업률 결과 70.7%를 달성해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취업률은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 63.8%보다 크게 상회하는 결과다. 또한 중원대는 취업률이 지난해 69.4% 대비 1.3% 상승해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취업설명회 및 취업캠프, 직무적성교육, 학생 개인별 상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춘 취창업지원센터장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특강, 취업상담, 학과별 맞춤형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창업 진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것이 지속적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한국 그린캠퍼스 운동 10주년 기념행사' 참여



▲김두년 총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한국 그린캠퍼스 운동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열린 '한국 그린캠퍼스 운동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가 주최하고 저탄소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및 그린캠퍼스 지역협의회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그린캠퍼스 운동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그린캠퍼스운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신의순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박태윤 회장의 연혁보고, 저탄소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김두년 회장(중원대 총장)과 일본 CAS-Net Japan 박혜숙 부회장의 축사, 저탄소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이흥찬 사무국장(중원대 대학원장) 및 그린캠퍼스 지역협의회의 활동 발표, 그린캠퍼스연합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두년 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 세대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시절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린캠퍼스 활동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올해 저탄소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대학으로 선정돼 국내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관장해 수행하고 있다. 〈편집부〉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2월 25일 글로벌 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이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이 글로벌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2월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강종훈 기획정보처장, 항공대학 소속 교수진과 中신양항공직업대학 유품생 이사장, 북경흠항환구국제항공과학기술원 대표 과수령, 부학장 고춘옥 등 양 대학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 서비스 인력 양성 및 교육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와 글로벌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항공분야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항공서비스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교류(현장실습, 승무원체험교실, 관계자 특강 등)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강점과 항공분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과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양항공직업대학은 하남성 신양시 정부가 베이징흠항세계국제항공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적으로 설립한 3년제 사립 대학이다. 특히 캠퍼스 내에 모의공항, 보잉 737-800모의비행기, 공항 터미널, 상무 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에서 항공교육 분야에서 선두에 위치해 있다. 〈편집부〉

비행교육원,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우리 대학 비행교육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비행교육원은 항공운항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교육과정 개편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대학 비행교육원은 교육생들의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교육생들은 국토교통부의 별도 실기평가 없이 최종 비행조종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김두년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이번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항공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게 됐다"며 "앞으로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토부 표준교육훈련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지난 2016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교육원을 개원하여 체계적인 비행조종사훈련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2018년부터는 미국 벨타 퀄리플라이트 비행학교(D.Q.A)에서 미국 조종사면허 취득 1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술 및 인재, 컨텐츠 교류와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부〉



▲항공운항학과 학생이 모의비행훈련을 받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교수,
'제18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 교수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학술-항공서비스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 '한국소비자권리증진연대포럼' 등이 주최하고 뉴스파일, 한국인물사연구원 등이 주관했다.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와 전문교수진,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연숙 교수는 이번 시상식에서 항공서비스 학술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만의 특성화에 주력해온 이연숙 교수는 매년 수시·정시 모집 경쟁률에 중원대 학과 중 최고 경쟁률,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대외행사에 참여해 학과와 학교를 홍보하는 등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연숙는 현재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관광경영학회 사무국장, 관세청 심사위원, 항공서비스 안전협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편집부〉

사회복지학과 정명희 교수,
'2018 충북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수상



▲정명희 교수(가운데)가 대상을 수상한 뒤 이시종 충북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정명희 교수가 12월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충북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일반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 수상자로 4개 부문 7명과 특별상 수상자 1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정명희 교수는 생산적 일손봉사 확산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명희 교수는 "올 한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보람찬 봉사활동도 펼치고 이번 상도 수상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일손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원대 국제교류원장으로 재임 중인 정명희 교수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괴산군 칠성면 외사마을과 생산적 일손봉사 동참 협약을 맺고 학생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 외국인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이 지난 1월 24일 서울랜드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학업에 지친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머나먼 이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유학생들 간의 교류 및 유대관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170명(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은 서울랜드에서 눈썰매, 빙어 낚시 등 한국의 다양한 놀이문화를 체험했다.

베트남 유학생 응웬 반 만은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 이었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명희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유학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은 유학생 간담회, 한국문화체험, 농촌문화 체험 등 다양한 유학생 체험 프로그램과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진행하는 농촌일손봉사, 연탄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다. 〈편집부〉

'뛰어라 Job아라'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취 · 창업지원센터가 대강당에서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취·창업지원센터가 교내 대강당에서 재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업 문제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진정한 청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취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최희 아나운서와 개그맨 전환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쫄지말고 Job아라'라는 주제로 조민혁 취업컨설턴트와 김도연 PD가 학생들의 취업을 응원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또 2부에서는 '청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패널들과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3부에서는 이지운 스타트업 대표의 취업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전선욱 웹툰 작가, 지투 래퍼,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장재열 청춘상담소 대표 등 분야별 전문패널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공연과 토크, 강연이 어우러진 축제와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향후 진로와 취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상춘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학업과 취업준비로 지친 학생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업에 대한 방향설정과 미래설계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창의인성교육센터,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창의인성교육센터(센터장 이지연) 교직원들이 12월 5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창의인성교육센터는 지난 10월 개최된 '중원 어울림한마당' 축제 기간 동안 진행한 중원대 비교과프로그램 '2018 아름다운 나눔장터' 바자회 행사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481,000원 전액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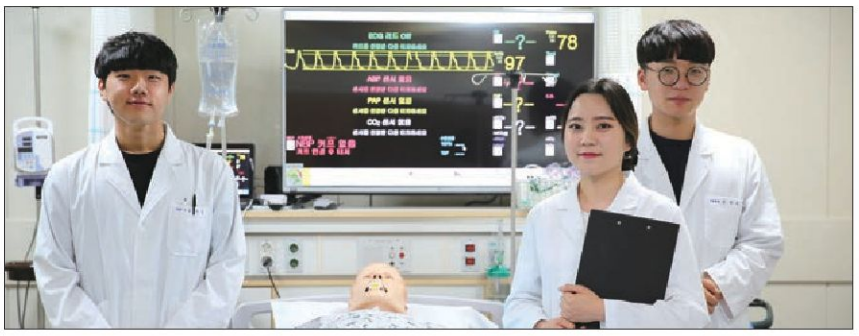
이지연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괴산군 장애인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원대 창의인성교육센터(센터장 이지연, 사진 왼쪽 두 번째)가 12월 5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편 창의인성교육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비교과프로그램 '2017 아름다운 나눔장터' 바자회 행사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100만 원을 괴산군청에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사랑 나누기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100%합격 쾌거



▲간호학과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간호학과 실습모습.

우리 대학 간호학과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생 66명 전원이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호학과는 학생들의 인성개발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장비 및 지역 유수 보건의료기관과의 실습협약 체결, 일대일 지도교수제 및 고시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꾸준히 실시해 매년 우수 간호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특히,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삼성병원, 이화여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분당 차병원 등 서울, 경기 병원 간호사와 보건교사, 공무원 등 각종 국가기관과 대형병원의 100% 취업하여 교육계 및 국내외 간호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혜경 학과장은 "국가고시에 대비해 학교 고시원에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특강과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등 학교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전문인력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문학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간호학과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100%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명문 간호학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편집부〉

항공운항학과 최관해 학생,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항공운항학과 4학년 최관해 학생이 지난달 30일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한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최관해 학생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소리와 음성 신호처리 및 분석 분야에 대해 공부해왔으며, 지난해 2월 충북도립대학 의료전자기기과를 졸업한 뒤 중원대 항공운항학과에 편입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최관해 학생은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재로 인정받아 충북에서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재 최관해 학생은 중원대 비행교육원 위탁교육과정으로 미국 텍사스 델타 퀸 리플라이트 비행학교(D.Q.A)에서 미국연방항공청 조종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비행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후 항공기 소음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관해 학생은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어머니와 친구들, 지도교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능기부 강의를 펼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우수인재 100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와 수영에 박태환 선수,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 기계체조 양학선 선수 등이 있다. ▶ 관련 기사 09면

항공서비스학과 첫 졸업생 아시아나항공 합격 영광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선영 학생이 아시아나항공 공채 객실승무원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 첫 졸업생이 좋은 기업체에 합격한 데는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의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개별관리 등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는 2015년에 개설되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 승무원 및 서비스 전문인, 국제화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승무원 체험교실을 비롯해, 외국어 스터디 그룹, 다양한 서비스 직업탐색, 전공심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이 개개인마다 지도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모의 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비하고 있어 2월 졸업생들이 집중 지원하는 2019년도 공채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 이연숙 교수는 "항공서비스학과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공을 살리면서 좋은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돼 뿌듯함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살아있는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학생은 "오랫동안 꿈꿔오던 승무원이란 꿈을 제 생각보다 더욱 빨리 이루게 된 것 같아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저를 시작으로 우리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는 매년 아시아나항공 실습 프로그램, 해외항공사 견학 및 실습 프로그램, 다양한 국내외 항공사들과 산학협력 구축, 해외인턴십 등을 통해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수시 경쟁률은 1905대 1(일반전형Ⅱ)로 중원대 학과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편집부〉

'2018 동계 글로벌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입상 쾌거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수대학에서 진행된 '2018 동계 글로벌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제6차 CEDC & ICIARE)'에서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CEDC & ICIARE(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mpetition & Innovation Application Research and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영어로 발표해 참가국의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평가 받는 국제 창의공학설계 경진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의 야마구치대학, 중국의 장수대학, 대련공대, 충칭이공대학, 한국의 중원대, 충북대, 건국대, 군산대, 서울시립대, 인제대 등 총 12개 대학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참가학생들은 3일간 작품 발표, 현장심사 및 제품시연을 통해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키우고, 제작된 제품에 대한 영어발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2018 동계 글로벌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해 참가학생 전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진 왼쪽부터 생체의공학과 정동진 학생, 김지훈 학생, 이지연 교수, 염종혁 학생, 이기호 학생)

17일 열린 시상식에서 '압력센서를 이용한 족하수환자 보행보조기'를 제작한 중원대 생체의공학과 염종혁, 이기호 학생(지도교수 배태수)이 동상을, '뇌졸중 환자를 위한 하반신 재활기기'를 제작한 같은 학과 김지훈, 정동진 학생(지도교수 이지연)이 베스트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편집부〉

괴산문화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두년 총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지난 12월 26일 오전 11시 교무회의실에서 괴산문화원과 상호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과 괴산문화원 장재영 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괴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행사추진 상호협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장재영 원장은 "중원대와 협력해 괴산지역의 교육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중원대는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축제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괴산문화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적극 지원하며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괴산군과 지역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경찰행정학과가 괴산군과 지역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가 괴산군과 지역 범죄예방 및 안전한 괴산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원대 유영재 사회문화대학장 겸 경찰행정학과장과 괴산군 임상빈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군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 정기적 순찰을 통한 지역 불안감 해소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지역치안 및 교육 △범죄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지역 범죄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는 2018년 캠퍼스 안전순찰대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각종 범죄예방 및 취약계층 교통사고 감소 대책 등 지역치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빈 행정복지국장은 "중원대와 상호 협력하여 괴산군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괴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사회문화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안전순찰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괴산군 및 괴산경찰서와 협력해 지역공동체 치안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2013년부터 재학생들로 편성된 캠퍼스 안전순찰대를 구성해 괴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매주 5일간 학교와 읍내 일원에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네팔 해외봉사활동 펼쳐



▲사회봉사단이 1월 25일 네팔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네팔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2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가하며 지난달 초부터 매주 2회씩 모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실시할 한국어교육, 태권도, K-POP, 미술 교육과 벽화 그리기, 페인트칠, 한국음식 및 전통공예 수업 등 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중원대 사회봉사단은 네팔 수도에서 약 8시간 떨어진 Bishampur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체육, 미술,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학교의 도색과 칠판 보수 작업, 학교 시설 정비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봉사도 실시 했다.

권정현 사회봉사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리더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실천적 봉사인 양성과 국제협력 관계증진을 위해 다양한 해외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사회봉사단은 2017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국내에서도 연탄나눔 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충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이 충청북도와 함께 충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내 PT룸에서 충청북도와 '1등 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사업을 대학과 상호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연계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창업지원, 인재양성, 기업매출 및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국비확보, 기업유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과 김도완 산학협력단장, 충청북도 이선호 경제기업과장을 비롯한 경제국 소관 6개 부서 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사업 및 충청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제안과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9년 신규시책인 충북형 경영의 목표 및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홍보 및 세부사업 발굴 요청 등 충청북도와 중원대학교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호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 충청북도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산학연 관련기관의 정보교류, 소통,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창업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 매출 및 고용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중원대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충청북도와 중원대학교 간의 관학협력과 산학연계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제19호 2019년 3월 4일 월요일

JUNGWON STUDIOS

어벤져스

2019학년도 총학생회 '스텝' & 단과대 임원 소개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총학생회 '스텝', 그리고 단과대 임원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9학년도 중원대학교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의 중원대학교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있는 총학생회&단대 임원들의 각오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혁기자 1010hmh@naver.com

STEP

더 나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총학생회장 박병준

중원대학교 제8대 총학생회 '스텝'의 회장을 맡게 된 박병준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스텝 구성원들과 함께 더 나은 캠퍼스 라이프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박영원

부회장을 맡게 된 박영원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기억 속에서 최고의 총학생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사무국장 김윤아

재정사무국장을 맡게 된 김윤아입니다. 모두가 알고, 헛되게 쓰지 않고, 믿음이 가는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정호

문화체육국장을 맡게 된 김정호입니다. 대학교의 꽃인 축제, 체전, 이벤트를 멋지게 기획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19학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국장 이수화

기획정책국장을 맡게 된 이수화입니다. 교내 외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권찬울

교육복지국장을 맡게 된 권찬울입니다. 항상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더 나은 교육 및 복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국장 허다숙

홍보국장을 맡게 된 허다숙입니다. 더 나은 홍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문화대학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사회문화대학 단대장 경찰행정학과 장윤철입니다. 사회문화대학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리 함 도입, 월간보고 등 공약을 잘 이행시켜 중원대학교 1등 단과대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단대장-장윤철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9년도 사회문화대학 부단대장 국제통상학과 15학번 손구환입니다. 사회문화대학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창설, 방학 중 짐 보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문화대학 학생회 '인스타'가 되겠습니다. 부단대장-손구환

융합과학기술대학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새롭게 당선된 단대장 이시형, 부단대장 최다인 입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의 'Only One' 첫 인사 올립니다. 단대의 내일을 위해 이번 선거에 관심 가져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책임감과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든지 더 나은 융합과학기술대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해소하는 단대가 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융합과학기술대학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단대를 만들겠습니다. 생활과 배움 속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소통하며 행동하는 융합과학기술대학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단대장-이시형, 부단대장-최다인





항공대학

안녕하십니까! 19년도 항공대학 단대장에 당선된 항공정비학과 15학번 윤성덕 입니다. 우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학우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대장-윤성덕

안녕하세요. 19학년도 항공 단대 학생회 에일 부회장 항공기계공학과 15학번 최재욱입니다. 항공대학 '에일'을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에일은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단대장-최재욱

패기와 자신감으로 도전하라!

최관해 학우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 등이 수상한 바 있는 교육부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학생이 우리 대학에도 있습니다! 바로 항공운항학과 최관해 학우(15학번)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재로 인정받아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번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는 비상을 하고 있는 최관해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운항과 음성분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항공기 소음과 안전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항공운항학과 15학번 최관해입니다.

Q.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과 포부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 인재상 최종발표, 설레는 마음으로 최종결과 안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당장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결과를 말씀드리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울음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주말마다 밤을 새며 논문 작성에 매진했던 교수님과 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고 또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눈물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저와 같이 꿈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신도 노력하면 된다는 꿈과 희망을 던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Q.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이후의 근황은 어떤가요?

현재 항공운항학과 교육으로 미국에 있어서 아쉽게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이후 신문사, 방송사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이를 통해 수상에 대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신 지인들에게 많은 축하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이후로 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상을 통해 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다음 목표를 위해 달릴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충북도립대학교을 졸업한 뒤 2017년 2월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로 편입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저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리와 음성 신호처리 및 분석 분야를 공부해 현재 중원대학교 비행 교육원 위탁 교육과정으로 미국 텍사스 델타 퀄리 플라이트 비행 학교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조종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비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항공기 소음과 안전에 대한 최고 기술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Q. 한 발 앞서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 많이 돌고 돌아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과정이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저의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는 항공분야에 발을 내딛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느니 도전해보고 덜 후회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꿈꾸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 100% 만족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을 내리지만 최종적으로 덜 후회할 것 같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도 생각했다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어느새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힘들지만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위해 나아가는 중원대학교 학우 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김유진 기자 djgj486@naver.com

---

중원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찰관 김영후 동문 이야기

누구나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모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홀로 가는 길에 누군가 같이 손잡고 나아가 준다면 그 길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로 꿈을 이루고 더 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후 동문, 선배님의 진솔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꿈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 11학번이었고 지금은 양평경찰서 단원파출소에서 관리반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후라고 합니다. 작년에 경찰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일단 제 꿈이기도 했던 경찰 공무원이 된 것 자체가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보람 있게 느껴집니다. 아직 일을 배우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일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중에서 저는 순찰돌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순찰 돌면서 난처해 보이는 시민 분께 다가가 도움을 드린다거나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준다거나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뭔가 가장 경찰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웃음

3 합격비결이 있다면?

저는 혼자 공부하다 보니 수험기간이 좀 긴 편이였어요.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필기를 합격하지 못해 다시 학교에 복학했지만 계속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자신감과 나아갈 방향을 점차 잃어갈 때 지도교수님인 유영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택 교수님, 이상열 교수님, 박현준 교수님, 조계표 교수님 모든 분들에게 수시로 전화 드리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께 전화 드리세요. 교수님들이 저희보다 연륜이 있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잘 제시해주십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열람실이나 기숙사 등 자신이 잘 맞는 장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공부 분위기가 조성되는 '고시원'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학우들이 많은데 인터넷 강의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는 이곳이 공부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학하고 고시원을 알게 돼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들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까지 공부를 할 때는 고시원 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리면 기숙사측에 양해를 받아 좀 더 조용히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와 과자.^^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에 매진한 결과 1년 반 동안 붙지 못했던 시험을 한 번에 붙게 되었습니다.



4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학우들에게 한마디

저는 처음에 공무원 시험에 대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많은 실패 끝에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실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점은 젊은 청춘들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중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jwu.ac.kr



나에게 주는 숙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과 올해에는 꼭 도전하고 싶은 일 등 각자가 소망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식품공학과 18학번 김성현



1 **일기 쓰기** 하루를 돌아볼 수 있고 나중에 읽어보면 소소한 재미까지 주는 좋은 습관인 걸 알면서도 꾸준히 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번 새해에는 밀리지 않고 한 줄이라도 꼭 일기를 쓸 생각입니다!

2 **어학연수가기** 더 다양한 국적, 성격, 성별 등 글로벌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어학연수를 꼭 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배워오겠습니다.

3 **마라톤 참가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 완주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마치 어떤 일에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건강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벅찬 감정을 한 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식품공학과 17학번 이지현



1 **외국어 회화 공부** 요즘 시대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트렌드에요! 그러기 위해선 외국어 하나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 아니면 배울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외국어 회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보는 시간을 늘려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2 **혼자 여행 가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장기 여행 가보면 낯선 환경 속에서 오로지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이 잘 보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뚜렷이 바라볼 수 있어서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3 **봉사하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도 제가 받은 도움을 힘든 분들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몸을 써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든 상황일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스포츠산업 18학번 전봉찬



1 **영양제 챙겨 먹기**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아무래도 집보다는 건강하게 밥을 잘 챙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는 줄이고 다양한 영양제를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서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2 **한 달에 책 1권 읽기** 스마트폰을 통해 지식을 단편적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늘어 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도록 노력할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읽을 생각으로 책만 사기보다는 천천히 한 권씩 읽으면서 습관을 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3 **다이어트하기** 한 번에 체중을 확 감량해서 면역력과 체력이 감소되는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장기간에 규칙적인 감량을 해서 요요를 피하는 다이어트를 할 것입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다짐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예정입니다.^^

레저스포츠학과 17학번 김나영



1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니기**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장학금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알바를 하는 것보다 장학금을 받으면 저의 학점도 챙길 수 있고 등록금까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 **한 달에 1번 이상 문화생활하기** 영화나 공연 관람, 책 읽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며 제가 직접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간접경험을 하며 저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넓히고 싶습니다. 다행인 게 괴산에 극장이 생겼더라구요~^^ 학교생활 틈틈이 영화도 보고 책도 열심히 읽을 생각입니다.

3 **나만의 향 만들기**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평소에 향기가 나는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향수, 섬유 유연제, 디퓨저 등 다양한 향료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만의 향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흔한 향보다는 저만의 향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괴산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중원대 캠퍼스 안전순찰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음과 열정으로 괴산지역과 중원대를 지키는 경찰행정학과 '캠퍼스 안전순찰대' 입니다. 저희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 하셨죠? 오늘 살짝 저희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저희 경찰행정학과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순찰을 나가기 전에 경찰관과 회의를 통해 순찰할 구역 팀원 배치와 진행 계획을 합니다.

저희 캠퍼스순찰대는 각 구역 별로 나눠서 괴산지역, 대학주변 등을 순찰하면서 기초질서 및 범죄를 예방하며 또한 주로 일어나는 음주문제 이외의 성폭력문제도 예방하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들의 외곽 구역과 본관의 취약 구역까지 꼼꼼 하게 점검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안전은 항상 저희 캠퍼스 안전 순찰대가 책임지겠습니다. ^^

나의 특별한 단점 극복기

뷰티인사이드

THE BEAUTY INSIDE



여러분은 본인의 작은 단점 때문에 우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단점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매사에 의욕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순 없겠죠! 여러분 가까이에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킨 학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01 힘없고 연약해 보였던 내가 태권도로 건강한 나를 찾았다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박지연

어릴 때부터 마른 체형이었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없고 연약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뼈밖에 없네", "너무 앙상하다"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에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연약해 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건강한 이미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태권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와 취미 삼아 가볍게 시작했었지만, 태권도를 하면서 몸도 전보다 튼튼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됨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며 점점 자신감을 찾았고 현재는 단증 1단을 취득했습니다. 주변에서 연약해 보인다고 말해도 이제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악성 곱슬인 나, 지금은 나만의 트레이드마크



경호학과
17학번 박병준

어릴 때부터 악성 곱슬머리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별명이 마이콜, 사자 등 곱슬머리와 관련된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특징이 싫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하나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저런 말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만의 특징으로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남들도 무시를 못 할 것으로 생각했고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놀림을 당해도 당당하게 대응했고 점점 놀림을 당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감정적인 타격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악성 곱슬머리가 빠질 수 없는 매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03 소심한 성격에서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한민혁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앞에 나서면서 주목받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발표 시간이 있으면 전날부터 긴장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면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수업도 다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러한 소심한 성격으로는 한 구성원을 이끌어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소심한 성격을 꼭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일단 뭐든지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싫어했던 발표를 자진해서 해보고 언론장학기자 활동도 하며 기자로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심했던 제가 조금씩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현재는 학생기자단의 국장까지 맡아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04 변화를 두려워하던 내가 바뀌기까지



간호학과
17학번 한은정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걱정부터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무섭고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겁쟁이인 제가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굳이 완벽하게 일을 끝내야겠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일을 하는 과정을 즐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세워 보기로 했습니다. 메모장에 간단한 세부 목표부터 적어놓고 이룰 때마다 하나씩 지웠습니다. 이로 인해 작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토닥토닥, 내 마음 다독이기



여러분들은 각종 일에 치여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나요? 누구나 그럴 때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삼는 방법이 하나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시죠.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국제통상학과 17학번 이희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기 마련이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또는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각종 일을 해결할 좋은 방안을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류혜인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글로 적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보통 우울한 감정일 때 본인이 어떤 감정인지 알지만 그걸 굳이 글로 적어보진 않죠. 하지만 전 글을 쓰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나는 그대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디에라도 내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니 생각 정리가 잘되고 답답했던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에 썼던 글을 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음으로 넘길 추억이 됩니다. 현재 우울해 하는 사람들에게 꼭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걸 추천해주고 싶네요.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최락훈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져보세요."



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노래를 들으며 빠르게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서 좋습니다. 만약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5분이라도 하고 싶은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 자신을 위로하며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울할 때 제가 하는 방법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윤아

"안 좋은 생각은 No!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저는 그럴 때 안 좋은 생각을 멈추고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친구들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이나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았던 경험을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을 막아줘서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끔은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잡념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니까요. 만약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면 이제부턴 긍정적인 생각만 해보세요!

보건행정학과 17학번 김정민

"나를 위한 생필품을 사보세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할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보세요! 울적해지면 샴푸, 바디워시, 칫솔, 비누 등 생필품을 주로 사는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비교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릅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나에게 잘 맞을지 고민하다 보면 내가 대접을 받는 듯 한 마음이 들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시작하는 봄에는 벚꽃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사기도 합니다.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좋아하는 생필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울했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하다면 날 위한 생필품을 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환경공학과 13학번 정철현

"머리가 복잡하다면 주변 정리를 해보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청소를 합니다. 일단 책상에 있는 물건부터 정리를 하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이렇게 청소에 몰두하다 보면 방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많이 널브러져 있으면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죠.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이런 일상적인 방법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주기도 하죠. 우울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주변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원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본인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우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앞서 나왔던 방법들을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다독이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중원인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JR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 JR-Jungwon Reporters / 인스타 그램 DM : jungwon_univ_jr



너만 모르는 중원의 힐링 플레이스

캠퍼스 내에도 한 번쯤 가볼 만한 숨은 장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장소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사를 통해 많은 장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남, 썸녀는 물론 혼자만의 여유가 필요한 솔로도 좋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핫 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모델 : 박현지(아동보육상담학과 18학번), 백승민(사회복지학과 15학번), 이시현 기자 sh088825@naver.com

잉글리쉬 카페

01 영어공부와 데이트를 동시에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차 한 잔의 여유도 느끼고 싶을 때는 잉글리쉬 카페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원어민 교수님들이 항상 카페에 계셔서 영어 실력 향상도 보장! 공부하다 힐링이 필요할 때는 주위 친구들과 젠가, 루미큐브 등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는 여러분의 용돈을 지켜준답니다.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운동장 정자

02 말랑말랑한 분위기



저녁이 질 무렵 정자에 앉아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누구든 말랑말랑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썸남 썸녀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름다운 전망에 취해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면 99%성공 한다고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기자기한 데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위치 : 모형 전투기 옆

야외 수영장 옆 벤치

03 나만의 힐링 장소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수영장 옆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보는 것은 어떠세요. '썸타는 연인과 함께 있다가 다람쥐를 발견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답니다. 또한 학업에 지친 여러분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혼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구름 사진을 찍게 된다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행운도 있습니다.

#위치 : 야외수영장 옆 벤치

식물원 연못가

04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식물원 예쁜 꽃들을 구경하고 식물원 연못가를 거닐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산책길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좋아하는 연인이나 친구들과 연못 주위를 따라 걷다 보면 사랑도 우정도 돈독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못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찍어 보세요~ 영화 같은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답니다.

#위치 : 산단지하 주차장 맞은편

박물관

05 지적 즐거움을 경험



캠퍼스에서 학문과 예술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공강 시간에 박물관을 들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교 학생증만 있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작품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치 : 산학협력단동

#준비물 : 학생증

식물원

06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 찬



조용히 혼자 쉬면서 힐링을 하고 싶을 때는 연못가 옆 식물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꽃들을 관찰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향긋한 꽃향기는 고민도 사라지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위치 : 산단지하 주차장 맞은편



제19호 2019년 3월 4일 월요일

대학생활, 이것만 알면 문제 없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중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대학생활은 지금껏 다녔던 고등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적응을 위한 정보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naver.com



1. 교과서와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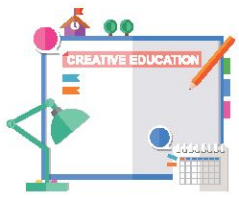
고등학교 때는 필수 교과서가 무료로 지급되거나 필수 교재 값이 소량 들어가지만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공과목별 교재 값은 고등학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버는 학생들의 경우 교재비로도 적잖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먼저 학년을 수료한 선배들에게 전공 교재를 물려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선배들에게 다가가 조언도 구하고 교재도 물려받으면 일거양득!



2. 화장실이나 전화는 눈치껏!

고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만 대학에서는 교수님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이나 볼일을 보지 못한 경우 일일이 손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치껏 빠져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장시간 돌아오지 않거나 그대로 수업을 안 듣는 만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요!

3. 시간표는 스스로



고등학교 때는 매년 시간표가 정해져있지만 대학에서는 자신의 시간표는 스스로 짜야합니다. 재량에 따라 특정 요일을 공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학점도 신청 제한학점 한에서 자유롭게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강신청 할 때 강의계획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해야 수업 이해도도 빠르고 교수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더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교무실이 아닌 연구실!



대학교에는 교무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을 찾아가야할 땐 어디로 가야할까? 바로 연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각자 자신만의 연구실을 쓰시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뵐 일이 생기면 해당 연구실로 가면 된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는 건 실례인 것 다들 아시죠? 먼저 이메일이나 문자로 약속을 잡고 찾아뵈는 건 기본중의 기본!

5. 장학금은 스스로 챙기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장학금! 하지만 내성적으로 무슨 장학금이야 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성적 장학금 이외에 여러 장학 혜택이 많습니다. 예로 들면 국가장학금을 포함해서 과대 장학금등 본인이 열심히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 혜택도 많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잘 알아보고 챙겨갈 수 있는 장학금은 챙깁시다!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활 꿀떡 TIP

A college life for new life TIP

봄 학기를 앞둔 새내기 대학생들의 설렘과 기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활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새내기가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01 선배를 적극 활용하라!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계획서만 보고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가장 좋은 조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겪어 낸 여러분의 학교 선배일 것입니다.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선배는 새내기 후배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가장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언을 구할 선배를 찾아야 할까요? 학교에서 수업만 듣는 것 보다 학과 모임 같은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렇게 선배와 동기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도 얻고 소속감도 쌓을 수 있습니다.

02 학년별, 학기별로 학업 계획을 세우기!

많은 예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낭만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요즘 대학생들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졸업과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 쌓기를 미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기별, 학년별로 본인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정해 학업 진행 계획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어학점수 획득이나 공모전 등의 활동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전공학과의 필요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수겠죠!

03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글쓰기 실력!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도 시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를 작성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요소는 글쓰기 실력입니다. 따라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관한 기초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적응하기에 바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학기 시작 전에 글쓰기 실력을 향상합시다. 우선 글을 잘 쓰기 위해선 잘 읽어야 한다는 점! 자신의 전공 서적이나 관련 신문잡지 등을 틈틈이 읽어주면 관련정보도 얻고 글쓰기 실력도 늘고 일석이조겠죠?

"귀여운 후배들아, 대학생활 궁금하지?"

19학번을 위한 선배들의 따뜻한 한마디

19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년 동안의 긴 여정을 멋지게 마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첫 걸음을 내딛을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배들의 따뜻한 응원 한 마디가 학교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현 기자 sh088825@naver.com

19학번 여러분들!
그동안 입시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꿈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다니시길 바랄게요!!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홀적 떠나고 싶었던 여행, 하고 싶었던 공부, 다양한 연애경험 모두 해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 거려도 좋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항상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8학번 이설

19학번 여러분들 20살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놀고 즐기면서 빛나는 20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와 달리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답니다. 다양한 과목을 수강해보세요. 2학년 때부터는 전공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학년 때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뿐 아니라 과 행사에도 참여해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는 19학번 여러분들 파이팅!



황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유진

19학번 새내기 여러분.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대학생활 너무 아쉽지 않나요? 새내기라면 MT에서 동기들도 만나고, 게임하고 술도 마시면서 노는 재미를 느껴봐야죠. 4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들과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이 밝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학과 15학번 김채현

19학번 신입생들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잘 찾아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역할들을 해보면서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 앞으로 4년 동안 본인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학과 18학번 김유리

19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해서 술 많이 먹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빛나는 학교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증원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스펙도 챙기고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이예림

신입생 여러분들! 본인에게 기회가 생긴다면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되어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니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4년 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빛나는 스무 살이 되길 바랍니다!



아동보육상담학과 18학번 김수인

19학번 후배님들♥ 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냐 다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문들이 열릴 텐데, 두렵다고 겁먹지 말고 이것저것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즐겁고 뜻깊은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ㅎㅎ! 파이팅!



간호학과 17학번 박다연

안녕하세요! 19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고등학생 때 제 생각이 나네요. 그동안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입시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 학과 분위기, 새로운 선배 등 걱정 많이 할 텐데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학과 18학번 최영민

19학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다닐 대학에서 공부, 봉사, 알바, 공모전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뒤돌아보면 든든한 밑거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본인이 원하시는 꿈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공학과 17학번 강동우

우리 19학번 새내기들아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어 걱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입학을 했거든요. 대학교 친구들과 지내면서 사람마다 다르다는걸 알게 되고, 대학교 친구들과 연애, 학점, 취업이라는 큰 문제를 겹에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지금 당장은 원래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종강과 주말을 이용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 자신이 생각했던 캠퍼스 생활과 다르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캠퍼스 생활은 환경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거 에요! 19학번 새내기들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서정민

19학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지금은 대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위치한 자리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만 한다면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동보육상담학과 18학번 박현지

19학번 새내기 분들!! 길고 길었던 수험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언제든지 SOS를 하세요~~^^



보건행정학과 17학번 박소영



알쓸중잡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중원대 잡학사전

신입생 여러분들!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진 않나요?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인 만큼 모든 게 설레지만 궁금한 점도 많죠? 캠퍼스 곳곳이 낯선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중원대 잡학사전을 준비했습니다!

ㄱ 게스트하우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있는 '게스트하우스'

학식이나 카페테리아가 아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레스토랑을 한 번 이용해보세요. 해물 크림 파스타, 돈까스, 갈비탕 등 여러 가지 메뉴와 중원대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맛까지! 오늘은 친구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밥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 문의 : ☎043)830-8501 ※재학생은 10% 할인

ㄱ 건강관리센터



몸이 좋지 않거나 약이 필요할 땐 '건강관리센터'

갑작스럽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참지 말고 학교에 있는 건강관리 센터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간호 선생님들께서 직접 몸 상태를 확인해주시고 약도 처방해주시니 중원대학교 병원이라 불러도 될 것 같네요.

◈ 문의 : ☎043)830-8292~3

ㄴ 나눔 이벤트



중앙 로비에서는 '나눔 이벤트' 룰!

본관 2층 중앙 로비에서 총학생회, JR(언론장학기자단), 홍보대사 등 각식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때가 많아요.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나 JR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공지가 되니 '좋아요'는 필수!

ㄷ 대학 학사운영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학 학사운영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부서이며, 본인의 소속 대학 학사운영팀을 통해 각종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

사회문화대학(MII 705호) ☎043)830-8553
융합과학기술대학(MII 604호) ☎043)830-8573
의료보건대학(MII 605호) ☎043)830-8673
항공대학(MII 1004호) ☎043)830-8477
교양학부 (S 401호) ☎043)830-8563

ㄷ 도서관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도서관'

우리학교 5층에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 서적부터 전공 서적까지! 또한 학술정보센터 어플을 통해 대여현황부터 자신이 원하는 희망도서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 문의 : ☎043) 830-8204

ㅁ 매점



따끈따끈한 빵을 맛볼 수 있는 '매점'

중원대학교의 편의점, 문구점, 빵집 등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 매점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맛볼 수 있다는 점!! 슈크림 빵, 고로케 등 너무 많은 종류에 하나만 고르시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문의 : ☎043) 830-8723

ㅁ 미용실



스타일의 변신을 원한다면 '미용실'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학교 내부에는 미용실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커트부터 시작해 여자 파마까지 다른 미용실과 경쟁해도 손실 없을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미용사분들이 계십니다.

◈ 문의 : ☎043)830-8704

ㅂ 박물관



이 모든 게 학교 안에?? '박물관'

22m의 공룡부터 진시황제 병마용까지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유물들이 있는 중원대학교의 박물관을 구경하러 가보세요. 외부에서도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인정받은 박물관! 특히 중원대 학생들을 항상 무료라는 점^^

◈ 문의 : ☎043)830-8283

ㅅ 셔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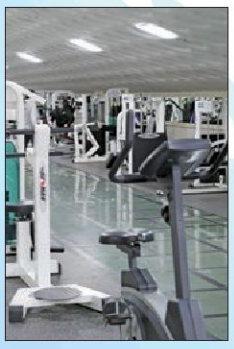


등·하교 또는 읍내를 왕복할 때 편리한 '셔틀버스'

학기 중에는 괴산읍내 셔틀버스와 청주·증평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요. 셔틀버스 시간표는 중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이용해주세요!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스쿨버스 → 셔틀버스
◈ 문의 : ☎043)830-8153

ㅅ 스포츠센터



건강한 몸관리를 위해 '스포츠센터'

건강한 몸 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학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러닝머신부터 시작해 종류별로 있는 운동기구들까지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외부 사람들과 다르게 할인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6:00~21:00, 주말 및 공휴일 07:00~18:00
– 무료 이용가능시간 : 오전 06:00~09:00
◈ 문의 : ☎043)830-8729

ㅇ 열람실



A+를 받고 싶다면 '열람실'

이용하기! 칸막이형 책상과 개방형 책상이 갖춰져 있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단, 음식물 반입은 금지니 주의해주세요!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맞은편의 열람실을 임의로 개방한답니다.

◈ 위치 : M2 – 5층 전체

영어카페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어보자 '영어 카페'

with 커피. 학교 안에 있는 영어카페는 외국인 교수님들께서 직접 커피도 타주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시는 힐링 플레이스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조별 과제도 서로 둘러앉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카페입니다.

◈ 문의 : ☎043)830-8762

ㅋ 카페테리아



메뉴 종류가 많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내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는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골라 먹는 즐거움과 친구들과 마음 편하게 노닥거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장도 됩니다!

◈ 운영시간
- 한식/중식 11:00~20:30 (금/토 20:00)
- 피자/치킨 11:00~22:00 (금 21:00/토 21:30)
- 분식 8:00~19:30 - 햄버거 8:30~20:30 (금/토 20:00)

◈ 문의 : ☎ 043)830-8515

카피 센터



프린트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카피 센터'

카피 센터는 복사와 스캔, 출력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위치 : S203호 카피 센터
◈ 문의 : ☎043)830-8763

ㅈ 직장예비군대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직장예비군대대'

직장예비군대대는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병무행정 및 상담, 예비군 관련 병무와 국방취업 상담을 실시합니다. 병역으로 인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교직원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에 관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 운영시간 :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위치 : M1 208-2호
◈ 문의 : ☎043)830-8191

증명서



학사 관련 각종 '증명서' 는 어떻게 발급받을까? 증명서는 인터넷, 학사운영팀, 애니카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증명발급센터
http://jwu.webminwon.kr/
◈ 운영시간 :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위치 : S203호(애니카페센터) ☎043)830-8763

ㅊ 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 관련 정보! '취·창업지원센터'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관 2층 S206에 위치한 취·창업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문의 : ☎ 043)830-8123~25
◈ 웹주소 : http://job.jwu.ac.kr

축제



대학생들의 진정한 페스티벌 '축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체전과 축제! 색다른 이벤트와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공연, 평소 먹지 못했던 푸드 트럭 등 여러 축제의 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년도는 1학기에 축제를 한다는 점!

ㅌ 통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와 장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은 본인의 학적정보, 수강신청 내역조회를 알고 싶다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통합정보시스템은 장학정보와 등록금 내역 조회, 기숙사 신청내역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웹주소 http://haksa.jwu.ac.kr

택배실





▲택배실 ▲무인택배실

주문한 물건은 여기서 픽업! '택배실'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서 편리하게 받고 싶을 때 생활관 내 택배실을 이용하세요!

◈ 수령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85, 중원대학교 남자/여자 생활관 택배실
◈ 무인택배실 :남자기숙사 2층, 여자기숙사 2층

ㅍ 평생교육원



수영과 골프를 동시에 배우고 싶다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학기별과 월별로 요가, 수영, 방송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9:00~18:00 ◈ 위치 : M2-208호
◈ 문의 : ☎043) 830-8232~3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과 학사 일정들을 얻어야 할 때 유용한 '포털 사이트'

중원대학교 홈페이지는 많은 공지사항과 학사 일정, 대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웹주소 http://portal.jwu.ac.kr

ㅎ 학생장학팀

장학금에 대한 모든 것! '학생장학팀'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관련된 모든 궁금사항은 학생장학팀에 문의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여러 장학제도가 있으니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운영시간 :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위치 : M2-213호 ◈ 문의 : ☎ 043)830-8103~5

ㅎ 학생상담센터



마음의 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기관입니다. 심리, 진로, 생활 및 성폭력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 및 개인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 운영시간 : 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43)830-8143~5
- 직접방문 : S210호
- 온라인 신청 : 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담 → 상담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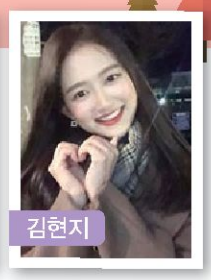
제19호 2019년 3월 4일 월요일

해외 인턴 도전기

나의 꿈을 키우다!







과거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자신의 "꿈"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분야로 해외취업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도 해외인턴을 합격하여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 인턴 합격후기 들어보실까요? 김규리, 김현지(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규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아시아 해외인턴십에 최종 합격한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규리 입니다.

김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스피디아 해외인턴십에 최종 합격한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현지입니다.

Q. 해외인턴십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규리 저는 교수님들께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배우며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해외 인턴십을 생각해왔었고, 기회가 되어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갔다 오신 선배님이나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십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보다 더 유익하고,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해외 인턴십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4학년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전 서비스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에게 외국어 능력과 같은 많은 배움과 경험을 줄 것이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나만의 면접 합격 비법은 뭔가요?

김규리 취업 면접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그래서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영어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영어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준비했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전에 그 회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찾아보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 교수님, 친구들과 면접 리허설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현지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바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끊임없이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면접 예상 질문을 계속 수정하고 연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같이 준비한 동기들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응원해 주었기에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규리 쉽지 않은 면접에 합격한 만큼 중원대 항공서비스의 얼굴이란 생각을 갖고, 밝은 회사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영어공부도 병행해서 더욱 프로페셔널하게 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서비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능숙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과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김현지 타국에서의 생활이라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번 인턴십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온 만큼 후회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국제적 감각을 기를 것입니다.

Q.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규리 이번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도 영어 준비를 꾸준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면접 때에 긴장하셔도 긴장한 티를 내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대로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지 면접 전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서 각자 원하는 꿈을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 학우 여러분 파이팅!

김유진 기자 dlgj486@naver.com



어서와 취업은 처음이지?

취업 꿀팁 정보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어져가는 취업고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균 취업스펙은 높아져만 가고 경쟁은 치열해져갑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스펙 쌓기일까요? 사소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스마트한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naver.com

SNS를 적극 활용하라!

누군가는 SNS가 인생의 낭비라 했지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SNS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관심 기업의 SNS를 팔로우 해두고 피드를 꾸준히 챙겨본다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르는 정보로 회사에 대한 애정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 직접 DM을 보내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에 관심을 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無경력이라면 '스토리텔링'을!

요즘 면접에 들어가 보면 실무 경력 빵빵한 '중고 신입'과 화려한 인턴 경험을 자랑하는 '고 스펙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취업 정글! 이제 갓 취업전선에 입성한 無경력 새내기들은 뭘 어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 경력과 인턴 경험만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혹은 대외 활동 중 수상경력 등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을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OK!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10가지 나열 X, 눈에 띄는 3가지 O

인사 담당자가 내 자기소개서를 몇 분이나 봐 줄까?'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길어야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상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지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를 면접에 올릴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연애편지 쓰듯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금물! 지루할 틈 없이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어필할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10가지를 나열하기보다 임팩트 있는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적는 것이 자소서 필승 팁!

이력서는 PDF로 저장!

회사채용 시스템을 통해 이력서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꽤 많은 회사들이 '이메일'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다 작성한 이력서를 hwp 또는 docs형태로 저장해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비추! 최근엔 이력서를 출력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돌려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 hwp나 docs 형태로 저장할 경우 이력서를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 실무진, 경영진의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열람이 안 되거나, 파일이 깨져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깨지지 않도록 PDF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점!

‘ 중원의 스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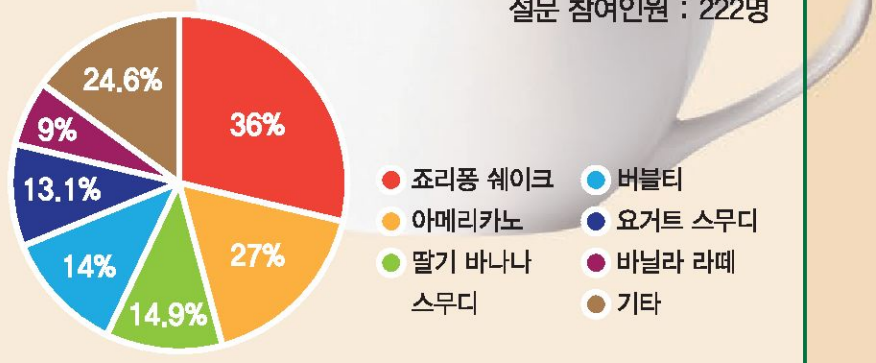
저렴하고 맛있는 학교 커피숍

아침에 강의실을 가기 전 따뜻한 여유와 달콤한 휴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원대학교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즐겨 찾고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받아봤습니다. 이번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메뉴 선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1 카페 메뉴 순위!!

1. 죠리퐁 쉐이크 80명 (36%)
2. 아메리카노 60명 (27%)
3. 딸기 바나나 스무디 35명 (14.9%)
4. 버블티 31명 (14%)
5. 요거트스무디 29명 (13.1%)
6. 바닐라라떼 20명 (9%)
7. 기타 : 아이스초코, 오레오 쉐이크, 아이스 녹차 라떼, 고구마 라떼, 초코 라떼, 녹차프라페, 복숭아 아이스티, 돼지바 쉐이크 등 – 50명 (24.6%)

설문 참여인원 : 222명



1위 죠리퐁 쉐이크

품평 :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고명은



1위를 차지한 죠리퐁 쉐이크는 따로 먹어도 달콤한 죠리퐁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조화롭게 입에서 녹아 미숫가루의 맛을 연출하고, 음료를 마시다 간혹 씹히는 죠리퐁은 아이스크림과 섞여 부드럽게 입안에 스며듭니다.

품평 : 달콤함이 풍풍 ★★★★★
가격 : 3,500원

2위 아메리카노

품평 : 아동보육상담학과 18학번 박현지



2위를 차지한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의 맛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디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달달한 과자와 같이 먹으면 맛도 두 배이며, 카페에서 갓 내린 원두의 향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품평 : 기분 좋은 향과 쓴맛과 단맛의 조화로움 ★★★★
가격 : 2,000원

3위 딸기 바나나 스무디

품평 : 사회복지학과 18학번 이설



3위를 차지한 딸기 바나나 스무디는 달달한 맛이 강한 쥬시 음료수에 비해 딸기 바나나를 더해 새콤달콤한 맛을 나타냅니다. 통째로 들어간 딸기 바나나가 섞인 스무디는 과일의 진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달콤한 분위기와 디저트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품평 : 비타민을 충전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맛 ★★★★
가격: 3,800원

4위 버블티

품평 :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유진



4위를 차지한 버블티는 느끼한 공차에 비해 깔끔한 맛이 담겨 있어 음료만 마시면 허전할 수 있는 입을 꽉차게 채워주는 타피오카 펄이 많이 들어 있어 씹는 맛도 있습니다. 입안에서 쫀득쫀득한 알갱이가 살아 움직이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평 : 공차보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 ★★★
가격 : 3,800원

기타

기타에는 아이스초코, 오레오 쉐이크, 모카 라떼, 민트 초코 쉐이크, 녹차 프라페, 밀크 쉐이크, 돼지바 쉐이크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많은 종류의 음료와 디저트를 매일매일 먹고 싶네요!

이시현 기자 sh088825@naver.com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신입생을 위한 괴산읍내지도

한 눈에 보는 괴산의 Hot place



괴산 장날



괴산 장날은 3일, 8일 장으로 한번쯤 나가 보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장날 치킨과 족발도 추천! 반찬이 필요하다면 장날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장날의 분위기를 느껴 보세요.

생활 용품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필요한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사할 때 필요한 생필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고 오셨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하나로 마트, 화랑 마트, 주성마트, 다이소 등 많은 상점들을 이용하세요. 새로운 룸메들과 손 꼭 잡고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은 어떨까요?

학술정보센터



중원대학교 도서관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도서관 이용안내, 통합검색, 대출조회 및 연기신청, 예약 등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서 신청과 원하는 책이 대출 중 이여도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2019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돌아오는 괴산 읍내지도! 올해도 빠질 수 없겠죠? 2019년 새로워진 괴산 읍내의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괴산에는 숨어있는 맛집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기동안 찾아서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왜 없지?" 하는 맛집을 발견한다면 꼭 제보 부탁드릴게요!

한민혁기자 1010hmh@naver.com